

장애인인권위 독립은 언제?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현재 총학 산하기구... 예비비로 재정 운영
인권위는 총학생회 회의 참석하지 않아
‘인권위 독립’ 총학 공약 아직 안지켜져

장애학생들의 권의 보호와 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지난 2002년에 창립된 장애인 인권대책위원회(이하 인권위). 총학생회 산하기구인 이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 소속 학생들은 인권위가 현재 총학생회 산하기구라 자주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지선(사회학과 3)씨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행사 개최와 인권위를 운영하는데 간섭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인권위의 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인권위가 학생자치기구의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힘들다고 꼬집는다. 백승관(사학과 4)씨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중앙자치기구 정기총회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책정한다. 예산안

을 가지고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발언하고 싶어도 발언할 기회도 없다. 총학생회 산하기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산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올해도 인권위가 예비비로 운영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산해 올린 예산을 말한다. 예비비로 인권위가 운영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불안정하다.

한 학생은 “졸업준비위원회도 예비비로 운영되는데 졸업준비위원회와 인권위의 예산이 비슷하다”며 “졸업준비위원회에 비해 하는 일이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인권위 학생들은 총학생회 산하기구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총학생회와 교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간부회의 때도 참석하지 않는다. 예년에도 대동제 행사계획 보고 외에

는 별 다른 얘기가 없었다.

한편 이공일이 총학생회가 작년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권위 독립을 약속했다.

김성훈(경영학과 3) 위원장은 “작년에 인권위를 방문해 인권위를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본부 시절 지난 11월 2일자 제주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장애인인권대책위가 총학생회와 같은 위치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현재 총학생회 산하에 있는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를 독립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당선 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는 “인권위가 독립하면 학교에서 장애인대책위원회에서 얼마나 지원금을 줄지 모른다”면서 인권위 예산이 더 줄어들 것 같아 걱정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앙대는 장애인 학생 단체가 보다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송혜성 위원장은 “인권복지위원회는 특별자치기구로 존재한다”면서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젊음의 계절, 5월을 당기다 지난 2일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 ‘청명체전’이 대운동장에서 열린 가운데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언론홍보학과와 줄다리를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선정... 지원액 26억원

작년 대비 19억 감소...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에 따라 희비 엇갈려
학부교육선진화 지원사업은 올해도 탈락

제주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로 26억4500만원이 받는다. 전년도 45억5900만원에 비해 19억 가량 줄어든 액수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을 평가한 뒤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평가 항목에는 취업률 지수, 교원확보를 등 대학의 교육성과 및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다. 국·공립대의 올해 지표에는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비 건전성 등 선진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제주대는 지난 3월 21일 ‘제주대학교 총장 후보직선추천제도 개선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를 개선해 교육역량 강화사업비를 받는데 일조했다. 총장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4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19억 가량이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문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찰이 심했던 총장직선제를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인문대학의 한 교수는 “학교에서 총장직선제 개선을 하지 않으면 매년 받던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못 받는다고 거론했었다”며 “개선을 했는데도 줄어들었다면 화가 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중 장학금을 위해 썼던 예산이 11억에서 1억으로 대폭 줄어든다.

대학본부에서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대부분 대학에서 예년에 비해 적게 받았다고 밝혔다. 교과부 산하기구인 한국장학재단이 각 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줬기 때문이다. 제주대의 경우, 지난해 1학기 에 비해 약 30억원이 증가된 47억여 원을 학생장학금으로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장학금, 취업캠프,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쓰는 교육역량강화사업비가 평년에 비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예년에 비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많은 대학이 선정된 것도 사업비

가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문지은(기획평가과) 실무관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생 개인에게 주는 장학금이 많다 보니 교육역량강화사업비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금액 축소로 인한 학생들의 지원금 감소에 대해 양석근 기획처장은 “장학금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액수는 4억 정도”라며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 중 비효율적이고 효과를 보지 못한 사업들만 정리한다면 학생들의 혜택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

고 말했다. 또 양 처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도 있지만 취업률 등 학생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업비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 사업은 3년 연속 탈락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한해 선발하는데 제주대는 이번 에 새로 선정된 3개 대학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동현 기자

제5대 교수회장에 이상봉 교수 당선

10월 말까지 6개월 임기

이상봉(회계학과) 교수가 제5대 교수회장에 당선됐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5대 교수회장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이상봉 교수가 352표 중 186표(52.8%)를 획득, 고영철(언론홍보학과) 교수(163표, 46.3%)보다 23표 앞서면서 최종 당

선됐다.

앞서 열린 1차 투표결과 △고영철 교수 128표(33.9%) △이상봉 교수 121표(32.0%) △김두경(경영정보학과) 교수 30표(7.9%) △권영호(법학과) 교수 96표(25.4%)로 고영철 교수와 이상봉 교수가 각각 1,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전임교원 561명을 대상으로 치러

▶인터뷰 4면

진 이번 투표에서 1차 투표 67.3%, 2차 투표 62.7%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보궐선거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사퇴한 양길현 전 교수회장을 비롯해 제4대 교수회 임원들이 총사퇴함에 따라 치러졌다. 5대 교수회의 임기는 오는 10월말까지이다.

김명지 기자

이상봉 신임 교수회장 인터뷰 ▶4면 특성화사업단 현장 - 한국사회과학연구원 ▶5면 장애인 휠체어 체험기 ▶8면

재일제주인과 함께 하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재일제주인센터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새로이 조명하여, 그들의 개척정신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역할은 물론, 재일제주인·재외한국인 연구의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재일제주인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zainichijeju.jejunu.ac.kr>
전화번호 : 064)754-3975~3978
팩스번호 : 064)724-8855

사설

새로운 교수회에 바란다

지난 5월 1일 새로운 교수회가 출범했다.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임기인 6개월이다. 전임 교수회장단의 활동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공약으로 제시한 ‘화합’과 ‘제도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각오로 임한다면 이 기간도 짧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선, 교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학칙 제14조에 의거하여 학칙기구로 등록되어 있는 교수회 규정을 보면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대학운영에 교수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수의 교권과 권익을 옹호함”에 교수회의 목적이 있다. 이번엔 교수회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것도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교수회 총회 참석자들 다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총장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학생정원감축과 유사학과 통폐합이라는 구조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국고지원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되는 상황에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압도당해 있었다.

다행히, 교교부가 구조개혁의 칼을 댈 수 없는 대학들이 직선제를 고수하기로 함으로써 직선제폐지

여부가 구조개혁대상 대학선정의 기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대학들 대부분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와 같은 사태의 추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본부와 맞서지 못했다는 지적을 겹겹히 받아들이고 일괄사표를 제출한 전임 교수회장단의 결단을 돋보이게 한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대학총장직선제는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제도가 ‘당근과 채찍’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실속은 챙겨야 한다는 대학 본부에 보다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직선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는 것이 대학선진화의 핵심이라고 본 교교부의 직선제폐지유도 방안은 유치한 것이었다. 지난 4월의 직선제폐지 찬반투표에서 상당수 교수들이 찬성한 것은 제자들의 회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직선제를 고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2013년 말의 총장선거가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화합’ 차원에서는 평의회에서 지적된 단과대학별 예산지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새로운 교수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건투를 빈다.

이제는 혁신을 보여줄 때

돌이켜보면 2009년 봄 이후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제주대학교는 흑독한 시련을 겪었다. 우리 대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추천한 총장후보의 임명이 교과부로부터 거부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장 없는 불안한 항해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이다. 직무대리가 임명되었지만 연례적이고 관례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학의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은 계속 보류·연기되었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재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후보자가 절차를 거쳐 제8대 총장에 임명되었다.

2010년 2월 드디어 제8대 총장이 임명되자 우리대학교의 많은 구성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선거 과정에서 지지 여부를 떠나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총장이 오랫동안 표류하던 위기의 대학을 하루빨리 순항시켜 주길 바랐다. 대학을 둘러싼 급변의 상황들은 대학행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다행히 허창진 총장은 취임 초기에 대학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기도에 부응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그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의 유치, 대학평가에서의 선방 등으로 대학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최근에는 로스쿨 변호사 시

험 합격률에서 거점 국립대 1위라는 영광도 차지했다. 물론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하여 적잖은 갈등을 겪긴 했지만, 허 총장의 전반기 2년은 대체로 무난한 대학운영이었다는 평가를 내려도 무방할 것 같다. 기획처에서 곧 ‘최근 2년간 주요업무 추진 실적집’을 제작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아마도 거기에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행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반기 정책기조가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은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추진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예전에 그래왔기에 어쩔 수 없이 않는 나며 관행에 기댄다거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는 편의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선 결코 안 된다. 대학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육력을 각오를 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며, 그렇게 추진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헌신적인 자세가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행정담당자들에게 요구된다.

지금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혁신하는 명품대학’의 건설은 바야흐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글로벌 시대의 뉴 리더’는 결코 안정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국토부 직권취소는 위헌”

오수용 교수 문제제기 “지방자치제 내용 침해... 외국 어디서도 볼수 없어”

강정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오수용(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법률해석을 내놓았다.

지난달 26일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강정 해군기지 공영수면 매립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주최 ‘포럼제주인’)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경원(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수용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또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법무법인 ‘도움’의 박선이 변호사, 법무법인 ‘J&P Law Group’ 하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 발표에서 오수용 교수는 169조 1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명령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 장관은 기간을 정해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명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지사가 공영수면 매립공사 중지 처분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취소 정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오 교수는 “169조 1항의 취소 정지권은 3권 분립주의에 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타국 어디에서도 장관의 직권취소권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국가가 시정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정당한 감독권 행사라 할지라도, 법원의 판단 없이 명령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오 교수는 또한 “설령 이 같은 국가와 지자체 간 상하 주종적 관계를 헌법이 인정한다해도, 도지사의 정지처분은 169조 1항의 주무부 장관의 취소권 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타 지자체장과 달리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주무부



강정 해군기지 공영수면 매립공사 중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열린 가운데 오수용(오른쪽·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경신(고려대 법학과) 교수.

장관과 대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취소 정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곧 주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번 양보해 제주도지사의 공사 중지 처분이 취소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명령 처분이 적법하게 행사됐을 경우 주무부 장관은 응당 취소권을 발동할 수 없

고 발동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교수는 “만약 도지사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을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처분의 위법함을 역지강변하며 취소권을 발동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자체의 존재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중앙자치기구 출범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홈페이지 불통

해당 사이트는
서비스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 사이트 운영을 다시하려면?

01. 홈페이지에서 연장하는 방법

서비스 받으시는 호스팅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서비스관리] > [서비스연장]에서 연장을 하시면 5분 이내로 사이트는 정상화 됩니다.

본 페이지를 보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서버방장으로 인해 만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장 바로가기 >

02. 모바일에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페24(http://m.cafe24.com)로 접속해서도 기간 연장 및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홈페이지 방문자님들은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문의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 출범식이 열린 지 두 달이 지나도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단혀 있다.

학생 중앙자치기구 홈페이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구축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위원회,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돼 있는 중앙자치기구 중 동아리연합회를 제외한 세 개 자치기구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사이트의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나오거나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화면이 뜬다. 동아리연합회 역시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아닌 소규모 클럽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민정(중어중문학과 2)씨는 “평소 중앙자치기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학내 정보를 얻어가곤 했는데, 홈페이지를 열어놓지 않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연대학의 한 학생은 “당초 중앙자치기구는 학우들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 개설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로부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탁받은 정보통신원은 현재 행정상의 문제와 더불어 필요한 데이터가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상미(정보통신원)씨는 “중앙자치기구의 홈페이지 구축 예산은 기성회계로 잡혀 있는데, 관련 회계 시스템이 3월 초부터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도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전체적인 작업은 거의 끝난 상태인데, 아직 총학생회로부터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전달받지 못해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4개 중앙자치기구 홈페이지를 통합한 하나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다 보니 준비하는 데 다소 시간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준호 총학생회장은 “중앙자치기구 전체를 통합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매년 학생회가 바뀔 때마다 홈페이지

도 같이 바뀌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예산 낭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때 중앙자치기구 간의 회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개편 역시 지체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홈페이지에 필요한 데이터 역시 좀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길게 잡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준비를 완료해 늦어도 다음주 내로 중앙자치기구 통합 홈페이지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주)코러스트 발전기금 4억 기탁

제주대가 지난달 9일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코러스트로부터 대학발전기금으로 매년 4000만원씩 향후 10년 동안 총 4억원을 지원키로 약정한 기증서를 전달받았다.

(주)코러스트는 치료용 초음파 분야의 기술력을 상용화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초음파 의료기기 업체이다. 발전기금으로 기업은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를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은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산학협동연구 지원에 나선다.

제32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할 것.

5. 발표 : 제주대신문 872호(2012년 7월 4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TOEIC이 되면 취업이 보인다

♣제1회 모의TOEIC 경시대회♣

- ▶ 일 시 : 2012. 5. 17(목) 18:00~20:00
- ▶ 대 상 : 학부 재학생
- ▶ 응 시 료 : 무료
-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20만원, 우수상(1명) 15만원, 장려상(1명) 10만원, 노력상(10명) 5만원
- ▶ 입상자 선발 기준
 - 시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외국어교육원 강좌 1회 이상 수강자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선발 (기 수상자는 상위 수상일 때만 시상)
 - 노력상은 최근 1년 이내 모의TOEIC 성적 접수 향상 순 선발

♣ 2012 외국어교육원 모의TOEIC 일정 ♣

구분	시험일자	접수일자	비고
3차	5. 17(목)	5. 7(월) ~ 5.11(금)	경시대회
4차	6. 21(목)	6.11(월) ~ 6.15(금)	
5차	9. 20(목)	9.10(월) ~ 9.14(금)	
6차	10. 25(목)	10.15(월) ~ 10.19(금)	
7차	11. 15(목)	11. 5(월) ~ 11. 9(금)	경시대회
8차	12. 20(목)	12.10(월) ~ 12.14(금)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ij.jeju.ac.kr

학생회관 식당에 ‘교직원석’ 따로 마련

학무회의 건의로 배치
식사중 ‘회의공간 필요’
일부 학생들 부당성 제기

제주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협)이 학생회관 식당에 교직원 전용 식사공간이 다시 마련됐다. 현재 학생회관 식당에는 ‘교직원석’이라고 적힌 표지를 천장에 달아 놓고 책상 위에 안내판을 세워둔 상태다. 이는 지난 3월 20일에 열린 학무회의에서 한 학부위원이 “학생회관 식당에 교직원석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다. 생활협은 학생회관 식당에 이 공간을

마련해 지난달 교직원 전자문서게시판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 “학생회관 식당 운영을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최우선해야 하는데 형평성 없이 별도의 공간을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회과학대학의 한 학생은 “학생회관 식당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등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도록 만든 공간이 아니냐”며 “교직원을 위해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가로막는 이 지정석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석중 학생처장은 과거에도 교직원석이 따로



학생회관 식당에 안내팻말과 가림막이 설치된 교직원석이 마련됐다. 김동현 기자

마련된 적이 있다면서 “교직원들이 함께 학생회관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해 마련한 것”이라며 “일종의 회의공간으로 생

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외에 다른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한다고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명지 기자

이시향 명예박사, 발전기금 8억 이어 5억 또 쾌척

“제주대가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힘써 주십시오.” 지난 2010년 8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한 이시향 명예박사(75, 전 재일민단 동경본부 단장)가 지난달 29일 후학양성에 힘써 달라며 5억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이시향 명예박사는 제주시 환경면 두모리 출신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일본으로 건너가 (주)월드상사, (주)다카라공업 대표이사와의 함께 재일민단 동경본부 단장을 역임하면서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운동, 무연급 노인 구제활동 등을 펼쳤다.



이시향 명예박사가 지난달 29일 허향진 총장에게 5억원을 기탁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000만엔, 민단 동경본부 회관 건립에 1000만엔, 환경면사

무소 건립에 한화 5000만원 등을 기부하면서 고국·고향 발전과 재일동포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제주대는 2010년 7월 30일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제주대는 이 박사가 쾌척한 총 13억원 중 10억원은 아라 및 사라캠퍼스 장학기금으로 각 5억원씩, 나머지 3억원은 개교 60주년 기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관 건립에 쓸 계획이다. 한편 고국발전과 한일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체육훈장, 외교통상부장관 표창, 해외기업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문대, 대만 동해대학문학과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인문대학(학장 임동춘)이 대만 동해대학문과원(원장 구위군)과 지난 달 19일 인문대학장실에서 학술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대학은 △공동학술회의 개최 등 학술교류활동 강화 △상호대학 방문, 학술강연 개최 △학생들간 상호방문 활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제주대를 방문한 구위군(동해대학문과원 역사학과 교수) 원장이 진강관(인문대학 1호관) 문화원형 체험관에서 ‘건가시기적리학 : 고종리학사상(가정시기의 이학 : 청고종의 이학사상)’을 주제로 사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구위군 원장은 “이민족이 중국에 건립한 청조(淸朝)에서는 걸출한 3인의 황제(강희제, 옹정제, 건륭제)가 중국의 전통적인 유학(성리학)사상을 배경으로 한족에 대한 통치를 공고히 했다”면서 “황자교육기관인 상서방(上書房)의 투철하고 치밀한 교육환경을 통해 청 고종이 시행하였던 통치이념으로서의 이학(理學)이 배양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민족임에도 한족 특유의 통치이념인 이학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학문적 역량을 황자들에게 요구하면서, 장차 제국을 통치할 황제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게 했다는 것이다.

구 원장은 또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이학을 채택하면서도 실제 통치의 측면에서는 강력한 법가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우디문화원과 학술교류

제주대가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문화원(원장 투르키 파하드알 아이야르)과 지난달 4일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두 기관은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 세미나, 강연 개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부속시설 탐방 18. 동물병원

치료·학술연구·실무경험의 산실... 연매출 1억



지난 7일 김정호 관리사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병든 강아지를 진료하고 있다.

도민들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내에 일반 동물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그 동물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동물들도 있다. 그런 동물들을 대상으로 치료해주는 곳이 우리 대학에 있다. 바로 제주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원장 강태영)이다. 1995년 설립돼 비현관(인문대학 2호관) 뒤편에 위치한 동물병원은 동물들을 진료하면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한다. 동물병원에서는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완쾌가 어

려운 동물들을 치료해준다. 다만 교직원 및 학생들에 한해서는 일반 동물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나 건강검진 등을 해주며 20% 할인 가격으로 진료한다. 동물병원은 학생과 교수가 같이 치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배우고 교수들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병원에는 반려동물과 같이 작은 동물을 진료하는 소동물진료실과 사육동물과 같이 큰 동물을 진료하는 대동물진료실로 나뉘었

다. 또 세포배양실, 조직배양실 등 연구에 도움을 주는 곳과 병리학교실 및 외과학교실 등 교육에 도움을 주는 곳이 있다. 장비는 현미경, 분쇄기 등 50여 종의 장비를 보유한 상태다. 동물병원은 하루에 4~5마리 정도의 동물들을 치료하고 있다. 치료대상은 대부분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이다. 하지만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의 목장에 나가서 사육동물들의 전염병 진단 및 예방 주사 등 집단 치료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도내에 있는 다양한 동물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 외에도 HACCP(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에 부합한 전문 인력 프로그램과 말 전문 수의사 양성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동물들에게 인공심장과 신장을 달아주는 치료를 통해 인공장기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도 많다. 건물이 지어진지 17년째다 보니 노후화돼

있고 타 대학 동물병원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 처음 지어질 때보다 의료기기가 많아져 건물의 공간 부족 문제로 심각하다. 또 인력도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외과, 내과, 산부인과, 임상병리과 등 4개의 과에만 전문 교수가 있어 피부과 등 타 과 진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동물병원은 연매출 1억을 달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주도의 말 산업 특구 지정에 대비해 학내에 말 전문병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진료 케이스를 확보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기르게 할 생각이다. 도외지역에 격리돼 있어 구제역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질병 예방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강태영 원장은 “치료대상을 확장해 어패류의 치료도 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과 인력 보강을 통해 동물병원에 동물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대학문화의 꽃 ‘동아리’가 지고 있다

인준 동아리 44개 불과
학생들 취업에 열중...
학술동아리 많이 없어져

대학의 낭만이라고 불리는 동아리가 점점 쇠미하고 있다. 신입생 지원이 매년 줄면서 사라지는 동아리가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대는 2008년까지만 해도 70여 개의 동아리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44개로 대폭 줄어든 정도로 최근 대학 내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 동아리 내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로 학생들은 취업의 중요성을 꼽는다. 취업을 위해 교류 수학, 단기 해외 연수 등을 준비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해 굳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학교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동아리 활동을 주로 얘기하기 보다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자연스레 취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동아리는 홀대시하고 있다. 고영범(독일학과 1)씨는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취업의 중요성

을 계속 들어서 취업에 계속 관심이 간다”며 “학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 동아리에 가입할 여력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같은 분야의 동아리가 많아 개인의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가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특히 음악 동아리나 봉사 동아리가 그렇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사를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기 힘들어 가입을 꺼려하는 것이다. 강수현(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1)씨는 “설치된 동아리 개수에 비해서는 동아리들의 다양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현재에 비해 동아리 활동이 아주 다양했다. 동아리가 처음 생겨난 1960년대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활발히 활동했었다. 또 봉사 동아리, 체육 동아리 등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에 동아리는 전성기를 이뤘다. 제주대에 현재 남아있는 동아리 47개 중 80년대 창설된 곳이 25곳에 이를 정도다. 그러다 동아리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

다. 민주화로 인해 정치투쟁이 줄어들자 학생들이 모여서 토론 등을 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술 동아리가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취미 및 교양 동아리들이 지속적으로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켰다. 2000년대는 창업 붐이 일자 창업 동아리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동아리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였다. 과거와 비교하자면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부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의 꽃이었고, 소통의 장이었던 적도 있었다. 동아리가 다시 학생들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아리들의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동아리연합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박현애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동아리 자체가 예전처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한자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의전원 중앙당에서 열린 ‘나이트게일 선서식’에서 60여명의 학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간호학과 나이트게일 선서식 가져

‘제13회 나이트게일 선서식’이 간호학과(학과장 현미열) 주최로 지난 달 27일 의전원문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간호학 실습을 앞둔, 60여명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나이트게일 선서를 통해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서식이 끝난 후에는 이윤선(간

호학과 3)씨가 이은주 교수로부터 제자사랑 장학금을 받았다. 김명지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사람들

허향진 총장, 거점국립대 회장 선출 허정임씨, 교과부장관상 수상

허향진 총장이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 총장들의 협의기구로서 제주대를 비롯해 서울대, 강원대, 경북대 등 10개 대학이 속해 있다. 허향진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거점국립대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영숙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곽영숙 교수(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2 정신의 날’ 기념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곽 교수는 제주도의 정신장애인 재활사업을 추진해 정신장애인의 인식개선, 편견해소, 재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곽 교수는 현재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맡으며 학교폭력 방지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도서관 허정임(자료관리과) 주무관이 지난달 26일부터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2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대학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허정임 주무관이 제주대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업무를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정신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해 이상을 수여했다. 허정임씨는 “제주대 도서관을 대표해 받았다는 기쁨이 더 크다”며 “400여명의 전국대학교 도서관 관계자 앞에서 제주대 도서관의 위상이 높아진 계기가 된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강성일 박사, 학문양성사업 선정

제주대 출신 강성일 박사가 ‘2012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연구지원비를 받게된다. 이 사업은 이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들에게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다.



인터뷰 제5대 이상봉 교수회장

“소통으로 갈등과 반목 치유… 현 사태 해결에도 앞장”

국교련과는 지속적인 연대 도모

대학 재정회계 운용 시스템 개선 시급

-교수회장을 맡은 소감은.

“제4대 교수회 총사퇴로 촉발된 이번 비상사태에서 교수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여러 교수님들의 성원에 감사하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대학 교수들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겼다고 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으로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교수회장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앞으로 시급한 것은 갈등과 반목을 잘 풀고, 화합하는 일이다. 또한 앞으로 총장 선출 규정 방식을 어떻게 해야 구성원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대화를 통해 방법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임기 동안 대학 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데도 힘을 쓰겠다. 어찌 보면 임기가 6개월인 비상교수회다. 교수회장이 해나가야 할 일은 많지만 많은 일을 추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단시일 내에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학이 고쳐야 할 불합리한 제도는 무엇인가.

“회계학과 교수로서 대학 재정회계 운영 시스템에 대해 적잖은 문제점이 보인다. 이점에 대해서는 학장을 맡는 동안 학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며 개선에 힘썼으나 쉽지 않았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대로 의견 반영을 할 수 없었다. 평의회에서 우리 대학 예산 시스템을 비롯한 대학 살림과 관련한 제도를 바꿔 놓겠다는 생각을 해 왔다. 교수회장에 출마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불합리한 재정운영시스템은 이제서 고쳐야 한다.”

-총장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후 직전 교수회가 대학 본부의 움직임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학내 비판 여론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총장 선출규정과 관련한 움직임이 몇 개월 전부터 있었는데 지난 교수회는 미리 의견수렴을 시작하지 않았다. 반면 본부는 총장 선출규정 개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교수회 차원에서 의견수렴과 투표가 이뤄져야 했었다. 찬반투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와서야 갑작스럽게 투표를 거부하는 방법은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본다. 충분히 내부 토론을 하고 대학 본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다. 결국 총장 직선제를 지키려는 교수와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총장 직선제 개선안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수회가 투표 보이콧을 할 게 아니라 총장직선제 찬반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했다.”

-직전 교수회에서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차원에서 교과부 장관 불신임 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국국공립교수연합회에서 논의되고 실행되는 활동들이 우리 대학 교수들이 대체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앞으로 국공립교수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우리 대학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취임 일성으로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단과대학별로 적정 인원을 교수회 임원으로 모시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이제서 교수들이 서로 얼굴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쉽다. 교수회 체육대회를 다시 열어 서로 단합하고자 한다. 평의회 의원들끼리도 대학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주 모여 머리를 맞대겠다.”

-교수회가 대학 본부를 상시 감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총장이 학교 운영을 잘하고 있다면 대립각을 세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박수도 쳐주면서 독려해야 한다. 반면 그렇지 못하다



김명지 기자

“본부와 ‘비판적 협력체제’ 구축

잘못한 일에는 비판·견제하고

잘한 일에는 칭찬을 해줘야”

면 비판을 하면서 교수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투쟁이 되선 안 된다. 서로 이야기를 자주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상생의 견제

성공의 비결은 긍정과 도전의 힘

정상은 내 가슴에

강태선 블랙야크 대표



“전국 1%의 제주를

결점이 아닌 긍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회사 직원들에게 ‘안 됩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를 쓰지 말도록 하고 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모르면 배우고 연구하면 되고, 없으면 찾으면 된다. 학생들은 설명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저지르면 답이 무엇인지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다. 또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조차도 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도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와 함께 성공을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르게 싸워야 한다. 다르게 싸운다는 것은 도전한다는 의미다.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지난 1월에 블랙야크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패션쇼 참여를 놓고 고심하자 직원들마저 아작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게다가 디자인도 아닌 그름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는 블랙야크가 유일했다.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는 다른 업체들과 싸워도 경쟁력이 충분했다. 한국적인 디자인에 히말라야 문화를 섞어내는 방식을 선택했다. 패션쇼 배경음악 하나에서부터 천연일물족인 음악이 아닌 네발 고유 음악을 틀며 현지인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다음날 홍보보스에는 현지 아르바이트생이 너더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다르게 싸운다’는 전략이 먹혀들었던 셈이다.

1973년 26세 때 처음 등산용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등산복과 코벌, 텐트 등 등산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당시는 등산인구가 거의 없던 시절이어서 주변에서는 분명히 사업에 실패할 거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도전을 통해 40년이 지난 지금 ‘블랙야크’라는 사랑받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8년에 중국에서 ‘블랙야크’ 1호 북경점을 냈을 때였다. 북경 1호점을 내고 12년이 지나니 중국은 전세계 아웃도어 브랜드가 각축을 벌이는 춘추전국시대가 됐다. 하지만 중국 아웃도어 시장을 개척했던 ‘블랙야크’가 현재 중국인 등산용품 선호도 1위이다.

어려부터 TV에서 보는 광고 카피를 비롯해 대부분의 광고 카피는 내가 직접 만든다.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사람이 가장 약이 오르는 것이 바로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신문에 ‘블랙야크는 만리장성을 지킨다’고 실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니들이 뭤데 만리장성을 지키냐’며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화제를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나라이니 같이 만리장성을 지키자고 제안했고, ‘블랙야크’가 아닌 ‘블랙야크도’ 만리장성을 지킨다고 광고 카피를 수정하며 중국인들의 호

응을 이끌어냈다. 조사 하나만 바꿨는데 중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쓰레기통 1000개를 사서 만리장성 곳곳에 갖다 놓으며 블랙야크의 이미지를 심었다.

제주 사람들은 1% 콤플렉스를 깨야 한다. ‘전국 1%’를 결점이 아닌 긍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전세계 63억 인구 중 1500만명 즉, 전세계 인구의 1%는 커녕 0.2%인 민족이 전세계에 걸쳐 경제, 사회, 학문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이다. 1901년 노벨상이 탄생한 이후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는 유대인이 23%다. 이중에서도 경제학상은 65%가 받았다. 미국사회에서 전체 변호사 15%가 유대인이다. 의사나 변호사 역시 15% 이상이다. 제주도민은 57만 명이 아닌 300만명이다. 제주도 바깥에 있는 재외도민이 63만명이다. 이들의 배우자, 자녀, 사위와 며느리까지도 ‘제주인’으로 보면 300만명에 이른다.

우리 블랙야크의 표적 고객이 120만명이다. 이들이 가져다주는 수익이 한 해 6000억이 넘는다. 갑골이 남아돈다고, 무가 남아돈다고 발에 묻어버리느냐. 고객이 이렇게나 많은데 팔 생각을 하지 않고 묻어버리느냐. 아니다. 우리가 300만명을 잘 관리한다면 앞으로 제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1%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능성으로 바꾸고 실현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내게 한라산이 없었다면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산은 내게 인생의 교훈을 준 삶의 스승이다. 화가 나가나 화사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마다 산에 오르며 답을 구했다. 숨이 넘어가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르막을 넘어야지 정상에 서서 삶의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리막으로 치닫지 않을 힘이 생긴다.

성공하려면 생각과 의지가 우선

당신의 삶에 이기는 습관을 심어라

전옥표 위닝경영연구소 소장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습관부터 바뀌야 성공한다. 결국 성공을 위해 바뀌어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닌 ‘습관’이다. 성공은 멀리 있지 않고 거창한 방법을 수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소한 습관들을 바꾸면 된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마침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인생 공식에서 습관은 단지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고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인격이 운명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매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에 접근했다. ‘새 안경테로 날마다 바뀌라(Frame)’, ‘로드맵을 다시 그려라(Process)’, ‘운이 좋은 쪽으로 접근하라(Relationship)’, ‘근원적 변화를 추구하라(Value)’다. 성공한 기업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빌 게이츠는 자기 단점을 빨리 버리고 타인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게 습관화했다. 워런 버핏은 최근에 집에서 출근할 때까지 한 책을 집중적으로 읽는 습관이 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신문을 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나쁜 습관은 빨리 고치고 성공하는 좋은 습관을 익히기 위한 비법으로 습관은 바꾸기 쉽다고 생각하고, 나쁜 습관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구조화하며, 좋은 습관을 학습해야 한다. 우선 오랫동안 고착된 습관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습관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습관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우리 몸과 정신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 속에서 좋은 습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늦잠 자는 습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대에 가면 가장 빨리 고칠 수 있다. 여러번 스스로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쉽게 습관을 고칠 수 있다. 위기라고 생각하면 변화를 줘야 한다. 즉 소위 말하는 ‘his story’에 따라가지 말고 ‘my story’를 만든다면 충분히 변화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면 좋다. 이를테면 ‘난 당장 살을 빼겠어’가 아니라 ‘매일 저녁은 먹지 않겠다. 계단은 걸어서. 콜라는 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몸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군대에서의 ‘병장’은 항상 후임병에게 모 든 것을 지시하고, 심부름을 시킨다. 그 행동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어떤 활동이 없다. 그러다 보니 병장들은 발전이 없고, 시간도 안가고, 항상 짜증만 가득하고 게을러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 속에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지고, 긍정적인 느낌 없이 시간만 보내는 기계가 되는 것이다. 다행히 나의 병장생활은 시간이 잘 갔던 것이 항상 먼저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고, 소대장의 신임을 받아 중대를 이끌었던 기억이 난다.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첫 입사 후 사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스스로 찾는 등 활동영역이 크다. 하지만 대리를 달고, 과장을 달면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시로 대체되기 마련이다. 한 발짝 물러나서 보게 되어, 스스로 움직임을 줄여가기에 자신의 가치를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기는 습관을 위해서는 각자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스스로를 위한 계획을 하고 이를 선언하여 그를 공고히 한 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 강연을 다니면서 기업에서 ‘운’ 타령을 하곤 한다. 운이 좋다는 것은 좋은 에너지를 지닌다는 것이다. 매년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도 불평불만이 쌓인다. 만족한 경험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부모가 부자인 것, 시골에서 태어난 것을 탓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고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 밖에 나오질 않았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도 대학교를 중퇴했다. 미국의 기업인 창업주나 CEO의 90%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 사례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진다. 누군가 정답을 정해줘서 학점 따고 공무원 시험 패스하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거기까지가 한계다.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에게 길은 무궁무진하다. 내가 만들어가는 걸 ‘창의’라고 한다. 창의적으로 실행하면 세계적인 길로 갈 수 있다.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선순환 리더십

유영대 남서울대학교 교수

선순환(Good Cycle)이란 개인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이 상호간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상승효과가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오랜 군대 생활을 해오면서 현장에서 적용하고 체화된 기본 원칙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기 위해 선순환 리더십 모델을 개발했다.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면 고객 서비스가 향상되고, 고객들이 만족하게 되면 매출 증대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 늘어난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발전 및 직원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직원 복지가 늘어나는 효과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선순환이다.

21세기는 리더십의 시대이다. 하지만 리더십의 기준 또한 시대 변화를 거치며 바뀌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리더십의 중심이 지시에서 지원으로, 군림에서 봉사로, 리더 중심에서 멤버 중심으로, 기법 중심에서 기본 중심으로, 물질적인 동기에서 정신적인 동기로 바뀌었다. 이는 모두 선순환 상호 역할에 초점을 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 선순환과 악순환이 결정된다. 선순환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선순환이 돼야 한다.

내셔널 파나소닉 그룹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소스케와 미국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되었던 로저 톨스는 기본에 충실한 삶,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생각 같은 악순환의 고리 차단, 주인공정신을 갖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 나와 상대방의 윈윈 전략을 통해 시너지 창출, 정찬과 격려, 인파워워트를 통한 잠재력과 창의성의 극대화, 선순환 반복으로 연쇄적 상승효과 창출 등의 선순환의 원칙을 가장 실천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고정관념은 변화와 혁신의 제일 큰 걸림돌이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변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꼭 필요하다.

리더십의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전략이나 전술을 잘 짜도 행하는 사람의 의지나 행동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또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와 하고 싶다는 ‘열정’,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몇명인가가 조직의 성공을 가른다.

미래는 여러분을 향해 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인가. 꿈을 심으면 꿈이 나는 것이 바로 미래이다. 미래는 기다리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며, 오늘 내가 하



“앞좌석에 앉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는 만큼 만들어지는 창조는 대상이다. 나의 시선과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무기는 ‘인간성’이다. 요즘 세계는 인재전쟁을 겪고 있다. 인간성을 갖춘 인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예전 아날로그 시대가 비행기 속도로 변화를 겪었다면 디지털 시대에서는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예전엔 관리자, 오늘날에는 지도자가 세상을 이끈다. 이를 위해 빨리 걷고, 앞좌석에 앉으며, 항상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빨리 걷는다는 것은 목표의식이 있다는 뜻이고, 앞좌석에 앉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것이다. 항상 웃는 얼굴로 대인관계를 좋게 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긍정적인 사고가 ‘선순환’을 창출한다.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이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다.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라는 태도가 여러분의 행동을, 습관을 결정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의 인생을 고쳐나가야 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CEO가 될 것.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것,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 현장을 잘 파악할 것,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할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할 것,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것, 유연하고 논리적이며 감동을 주는 관리자가 될 것 등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원래부터 주어진 길이란 없는 것인데, 사람이 계속 걷다 보니 길이 된 것처럼 원래 주어진 운명이 나 정해진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운명이나 미래가 정해지는 것을 알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학술기고 에너지에 대한 단상

LNG발전소는 ‘무공해’ … 제주는 청정연료 LNG 사용해야



박 윤 철
기계공학전공 교수

1960년대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55세였으나, 2010년에는 80세가 넘어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두 번 반 바뀌니 우리의 평균수명은 1/3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에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서 60년 대에는 한명의 어머니가 평균 5명 정도 아이를 낳았으나 이제는 1명을 간신히 낳고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보면 수명의 증가가 많은 사람이 오래 살지만 출산율이 낮은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은 평균을 맞추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 세계 각국의 통계를 보면 기대수명이 65세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총생산량(GDP)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달리 말하면 잘 살게 되니 기대수명도 길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인구증가와 GDP증가에 동반된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에 있다. 개발도상국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개발에 치중하다보니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어렵고,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한 환경오염을 동반하게 된다.

제주도도 에너지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용의 결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경제 즉, 관광산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며, 이것이 제주민이 살아가는 기초 인프라이다. 이러한 기초 인프라인 청정자연이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조금씩 파손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에너지사용에 있어 몇 가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에너지효율의 개선

에너지효율개선은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로등 격등제가 아니고 가로등을 LED로 바꾼다 등과 같은 효율 개선사업이다. 정책적인 효율개선사업으로는 에너지 라벨링(Energy Labelling),

에너지소비효율 규제강화와 같이 제품생산시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력사용의 말단인 모터의 효율개선 사업이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동력(움직이는 구동력)을 얻는 것이고, 구동력은 모터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터의 효율개선은 아주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분야이다. 모터의 효율개선은 한전, 지역난방공사 및 가스공사에서 몇 십년 동안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의 핵심이다.

둘째는 에너지절약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전력누진제 강화, 한등 끄기 운동, ‘승용차 없는 날’과 같이 자가용 안타기 운동이다. 전력누진제의 경우는 효율향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필자는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승용차 안타기 운동은 승용차의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급, 버스의 자전거거치대 설치 등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

제주의 현실은 한라산이 있고, 오름이 있어 과장하여 표현하면 산악지형인 제주에서 자전거보급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우리 대학의 경우에 신제주 혹은 구제주에서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 이들에게 자전거로 통학하라고 하면 아마도 나는 학생들이 택사행정의 전형이라고 하며, 당신이 나 해보시라는 비아냥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학교를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자전거 이용을 통한 에너지절약은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운동과는 다른 개념이다.

에너지 절약은 좋은 정책은 아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전력누진제, 승용차 안타기 운동 및 한등 끄기 운동 등은 개발도상국에서 국가의 발전이 우선시 되던 시절에 주민의 희생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이끌었을 때 이야기이다. 또한 이 사업은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계몽을 유도하는 방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설치된 풍력발전기들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법으로 정서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21세기의 에너지절약은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절약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의 발굴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새로운 에너지의 이용, 즉 연료 대체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늘리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및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 11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현실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실비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 태양광, 태양열 및 풍력이 대부분이다. 태양 에너지 및 풍력은 날씨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헐적이고 에너지밀도가 낮고 지열의 경우에는 제주지역의 지질구조의 특징으로 육지의 기술이 들어오기 힘들다.

풍력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듯이 제주가 가장 우수한 풍황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주 도민에게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단지개념의 해상풍력으로 보급방향을 잡고 있어 보급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보급저조 및 높은 발전단가가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열의 경우는 전도에 의한 지중열교환기에서 제주의 지질구조를 반영한 지하공기열을 이용한 대류열전달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태양열의 경우에는 현재 난방까지 가능한 설비가 보급되고 있으나 1970년대부터 보급되었던 태양열온수기의 낮은 신뢰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을 제외하면 미래의 에너지로 우리 사회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꿀 것이고 앞으로로 지속적으로 보급이 활성화 될 것이므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인 접근보다는 환경적인 접근을 통하여 우리 생활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에너지 이용분야에서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사용량이 증가한 세대를 살면서 고민해야 할 전술한 내용에 더불어 지역적으로 도서라는 고립된 섬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 한국전력의 전력차단사태를 바라보면서 건설중인 제주도의 LNG인수기지에 대하여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애월항에 건설 중인 LNG인수기지는 2004년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법으로 발전용과 민수용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6년 제5차 계획에서 발전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민수용 2만5000kl의 용량을 갖는 2기의 저장탱크가 2017년까지 건설되어 통영에서 신규 소형 LNG선을 통하여 수송하기로 결정되었다.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료사용에 있어서 가정용 연료 뿐만 아니라 수송부문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청정에너지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80~90%의 차량이 CNG차량으로 운행 중이나, 제주의 경우는 아직도 경유 차량이 대부분이며, 발전연료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유류를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수용 보다 사용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기존의 유류 발전소를 LNG발전기로 대체하고 발전용 LNG연료를 도입하는 것이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2012년으로 예정된 제6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제주도의 발전용 LNG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경우에는 사고, 단전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기 때문에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도서지역이므로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에너지자립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 권의 책

한·일 사료 철저히 분석

독도영유권 연구 집대성

해마다 2월이면 일본에서는 독도와 관련한 망언을 쏟아낸다. 우리 영해의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이 결국 일본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일본 내의 반응은 즉각적이기까지 하다. 심지어는 일본 국회의원이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하여 외교적인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이 반복되는 것일까? 일본이 독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데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보여주는 송병기 원로교수의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역사공간, 2010)은 국내는 물론 일본 영토의 근거로 제시하는 17세기의 사료를 치밀하게 분석해 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들의 치명적 오류도 밝혀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동안 한국 사학계에서 치밀하게 논증하였던 각각의 사실에 대한 사료분석으로 지리적 인식의 확대와 조선후기 도서(島嶼)정책에 대한 조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주된 대상이다.

5, 6장에서는 고종대의 울릉도에 대한 직접 경영의지를 확인하는 검찰사의 파견과 메이지 정부의 일본인 울릉도 도항 금지 및 쇄환을 다룸으로써, 조선 정부의 울릉도 개척은 당시 열강의 이권 다툼에서 지켜내고자 하였던 의지의 천명이기도 하였다. 조선 정부는 17세기 ‘울릉도쟁계’ 이래 정기적인 울릉도 수도(撫慰)를 시행하여 최소한의 해방(海防)체제를 구현하였다. 또 1890년대 울릉도 개척에 따른 수토정책의 폐지와 도감제의 실시는 적극적인 해방체제의 구현과 행정기능의 보장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감제가 형식적인 조치에 머물고 울릉도 거주 일본인에 의해 조선 정부의 노력이 교란되는 현실에서, 울릉도를 둘러싼 러-일의 각축은 울릉도 설치로 이어져 조선 정부가 울릉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던 노력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독도영유권 논쟁’의 빌미 중에는 1890년대 동해포경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도 한 몫 하였다. 일본은 오이타(大分)현에 포경회사를 설립하고 동해 포경을 시작하자, 러시아는 새로운 방식의 노르웨이 포경법을 이용한 활발한 조업이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동해 포경 장악으로 위기를 느낀 일본



송병기 지음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은 새로운 포경법의 도입과 포경기지의 확득에 주력하게 되었고, 동해에서 러시아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포경전이 개시되었다.

산업 자원 확보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각축은 울릉도의 전략적 위치를 재인식하게 되었고, 1899년 10월 러시아 측의 항의로 울릉도 거주 일본인의 철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조선정부는 조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내륙에 있는 일본인의 철수까지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조선 내의 일본인 철수 거부와 울릉도 일본인의 ‘거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모두 울릉도를 군사전략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결국 러-일전쟁으로 치닫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7장은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과 침입 내용을 다룬 울도군수인 ‘심흥택 보고서’를 추적·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대목이 눈에 띈다. 특히 ‘심흥택 보고서’는 현재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는 ‘강원도관찰사안’에서 밝혀낸 것이어서 원로교수의 열정을 짐작케 한다. 8장은 점예한 논쟁들의 핵심을 근간으로 하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검증들 정리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논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독도에 대한 여러 사안들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일간 영유권 주장의 표기 방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한국 영해에 속한 독도에 대한 주장은 그들이 제시하는 사료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지위를 ‘분쟁’으로 비약하고 싶은 것이다.

때문에 자칫 ‘영토분쟁’이라는 표현으로 비쳐진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독도에 대한 논의는 한-일 간의 역사논쟁에 국한하기 때문이다.

전 영 준
사학과 교수

특성화 사업단 현장 <9> 한국사회과학연구원

지속가능한 삶 위해 공유재로서의 물·바람·토지 연구

물, 바람, 땅, 어느 것도 애초에 인간이 소유했던 것은 없었다. 그저, 샘물로 목을 축이고, 땅의 양분을 먹고 자라난 곡식을 먹고, 바람이 주는 숨을 들이쉬며 살면 그만이었다. 토지를 거래하기 시작하며 점차 자연들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공공재였던 자연이 시장 속에 놓이며 자연은 수탈적 개발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자연이 없이는 인간의 삶도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을 어떻게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제주대 한국사회과학연구원(SSK, 단장 최현 사회학과 교수, 이하 연구단)은 물, 바람, 토지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연구단은 한국 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9월부터 연간 약 1억 2000여만원을 지원받으며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은 한국사회의 중요 의제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단은 이 사업의 ‘위협사회 도래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공모에서 선정됐다. 연구단은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물, 바람, 토지를 중심으로’를 연구주제로 삼고 선행연구 검토와 문헌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연구단은 자연을 어떤 방법으로 공공적으로 관리하면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자연의 공공적 관리를 통해

“자연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므로 마음대로 개발·훼손해선 안 돼

자연의 사유화에 대한 해결책 제시 위해 연구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와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

최현 단장은 연구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결국 사회불평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을 수탈하는 방식으로는 어렵

고, 정의롭고 공정한 자원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 단장은 “우리는 모두 자연에서 혜택을 받는데, 더 많이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차이가 커지면 결국 자연환경이 유지되기 어려워진다”며 “뜻사는 사람은 당장 자연을 훼손해

서라도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자연이 망가져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단장은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아

마존에 관한 예를 들었다. 최 단장은 “지구상의 허파인 아마존이 산소를 만들어서 전 지구인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는데, 정작 불평등으로 인해 아마존 사람들의 삶의 유지가 어려워지면 자연도 유지되기 힘들어진다”며 “잘 사는 나라에서는 개발을 위해 환경을 오염하면서 아마존 사람들에게 계속 자연환경을 유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회불평등은 결국 ‘자연의 사적소유’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연의 사적소유가 점차 확대되면서 자연의 소유에서 나오는 혜택들도 사람들에게 불평등하게 배분돼 왔다.

최 단장은 “자연을 공동체에서 소유하더라도 적절한 제도와 룰을 만들어내면 자연을 보호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수탈해야하는 존재가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보호해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단에서는 자연을 공동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절한 모델을 찾고 있다. 연구단은 자연의 사적소유와 과



지난 3월 30일 진양관(인문대학 1호관) 복합회의실에서 SSK가 ‘자유 공유재(물) 정책과 연구 현황’을 주제로 워크숍을 하고 있다.

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적 소유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하와이와 일본 등 섬 지역에서 물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지조사와 함께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또 스위스 에비앙에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지도 연구를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의 바람 공유화 문제에 관한 연구와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진양관(인문대학 1호관) 복합회의실에서 ‘자연 공유재(물) 정책과 연구 현황’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워크숍에서는 김자경 전임연구원이 ‘일

본의 물정책과 플레시 밴류 사회실험에 관한 공유재 이론적 접근’에 대해 발표하고, 정희종(한국학 대학원 박사과정)씨가 ‘제주도 지하수 정책 형성과정과 변화 과정 연구’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단은 오는 8월까지 기초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사회에 대두되는 물과 바람 등의 사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사람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들의 연구가 최근 논란의 도마에 오른 제주의 물과 바람의 사유화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지 기대된다. 고희형 기자

기고 한진 제주퓨어워터와 한-미 FTA

제주 지하수 개발허가는 대자본에 대한 특혜



김 동 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현재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 물을 제조하는 곳은 민간대자본인 한진그룹 (한국공항공)의 ‘한진제주퓨어워터’와 지 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삼 다수’가 있다.

그런데 한진그룹은 하루 100톤에서 200 톤으로, 제주도개발공사는 하루 2100톤에서 5100톤으로 지하수 개발량 증산을 신청 했다. 지난 4월 24일 (화) 제주도 지하수관 리위원회가 두 안건을 동시에 심의했는데, 한진그룹은 원안통과를 했고, 제주도개발공 사는 4200톤으로 변경하여 통과시켰다. 앞 으로 제주도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도 지사의 최종적인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앞두고 있다.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량 확대

그러나 한진그룹이 신청한 지하수 증산 안건은 이미 지난해 11월 지하수관리위원회 에서 부결된 적이 있고, 지난 5개월 동안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갑자기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 의 삼다수가 이번에도 신청한 지하수 증산량 은 앞으로 10년 이상의 계획량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민없이 공기업이라는 이유만 으로 그들의 필요수량을 허가해 줬다.

공기업은 지하수를 너무 많이 뿔아쓰고 있고, 사기업은 공공수자원으로 규정된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해서 사익을 취하려 한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사회공공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할 문제는 제주도지사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공기업 의 지하수 대량개발 보다는 FTA 조항을 이용 한 외부 대자본의 지하수 사유화다. 이제 는 한진그룹에게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계속 내줘도 되는지 진지 하게 생각해 볼 때다.

이미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 발·이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4반세기가 넘는 28년이라는 오랜 기간 제주도의 지하 수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왔 으며, 먹는샘물 판매에 따른 경영상의 이익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앞 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계속 내준다면 민 간 대자본에 대한 특혜일 뿐이다.

둘째, 이미 제주도민에게는 제주도가 100 %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라는 지 방공기업이 먹는샘물 ‘삼다수’ 등을 생산하 고 있으며, 매년 배당금으로 130억~150억 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 수를 한진그룹이라는 사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개발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가 없다. 또 한진그룹이 필요한 수량은 더 이상 자체개 발이 아닌 지방공기업인 삼다수로부터 구매 하면 된다.

셋째,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제 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 한 지방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으며, 제 주도 지하수조례 제6조 4항에 따라 지하수 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1호),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 니하는 경우 (3호) 도지사는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한다면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 달성할 수 없어… ISD 조항 등 한미FTA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 붕괴 초래할 수도

도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 해 사기업에 대한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 용허가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한진그룹에 의한 지하수 사유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진그룹의 먹는샘 물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계속 내줄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붕 괴다.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에 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와 역진방지 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이 있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수화하는 원칙이 무력 해질 수 있다.



한진 제주퓨어워터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FTA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환경부 국제협 력관실에 전화문의를 했다. 우리 정부는 “먹 는샘물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조항은 FTA 협상과정에서 다루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 삼을 수도 있게 된다. 이 경우 미국 투 자자는 내국민대우 또는 최혜국대우 위반을 주장하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를 이용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법적 근거인 제주특별법과 지하수관리조례를 공격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제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FTA는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 며, 신법을 우선하는 원칙에 따르면 제주특 별법 보다 한-미 FTA가 우선 적용된다”고 답했다. 결국 우리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한 특별법과 도 조례를 강제로 바뀌어 할지도 모르며, 또한 다른 민간 투자자에게 도 제주도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개발 사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미FTA가 제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이미 이런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시민사 회단체들은 한-미 FTA발효가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 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전달하였지만 한 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 가 기간은 2013년 11월 24일까지 연장되었 다.

결국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미 FTA에 의해서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이제 는 그만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우근민 지사의 책임 있 는 결정을 바란다.

제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9>김지순·양용진 모자(母子)

향토음식에 힐링문화 담겨 대를 이은 가치 재조명 작업

조리실에 들어서자, 고소한 향이 진 동했다. 자리 지지는 냄새였다. 이어 된 장재피부침과 각재기우이, 매밀묵적이 차례로 만들어졌다. 조리실 가득 제주 음식 향이 풀풀 풍겨들었다. 그곳에 모자(母子)가 있었다. 어머 니 김지순 (76·제주향토음식명인 제1 호)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과 아 들 양용진 (48) 부원장이었다. 모자는 제주향토음식을 재현하느라 분주했다. 제주향토음식을 표현해 달라는 물음에 “제주의 돌담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며 자연과 조화되듯,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재료 본연의 맛을 담 아냅니다”고 말했다.

제주향토음식이 지속적으로 그 가치 를 지키기 위해 뿌리음식을 보존하는 이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지순 양용진 모자는 “음식은 생활문화 여서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이렇게 변 화하는 음식들이 잘 변용되기 위해서 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원형보 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모자가 이렇게 제주향토음식 을 보존하고 전승하기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노력으로부터 시작안 다. 제주에서 태어난 김지순 원장은 1955년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제주음식과 타 지역음식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 다. 이렇게 시작된 관심으로 김 원장은 1973년 산업정보대 관광호텔조리과 교 수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과 함께 제주 향토음식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김 원 장은 요리학원을 열어 본격적으로 제 주향토음식을 알려나갔고, 미국과 일 본에도 오가며 외국인들에게 갈치국, 빙떡 김치 등 당시 생소했던 제주향토 음식을 소개했다. 또 김 원장은 1998년 도 제주향토음식의 특징과 조리법 등 을 담은 책자 <제주도음식>을, 2001년 <제주향토음식문화>를 출간했다.

양용진 부원장은 올해로 18년째 향 토음식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 부 원장은 처음부터 향토음식 연구를 업 으로 삼지는 않았다. 그는 본래 서울에 서 문화기획과 관련한 일을 하다가 제 주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 해 제주에 내려왔다. 양 부원장은 “제주에 내려와 어머니 께서 30년 동안 정리해 둔 제주향토음 식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보고 체계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느꼈다”면서 “이



김 지 순 제주향토음식보존연구원장(좌)와 양 용 진 부원장(우)

렇게 귀중한 자료가 단절되거나 존중 받지 못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 했다. 이렇게 함께 연구를 시작한 모자 는 지난 2000년 후학들과 함께 본격적 인 제주향토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주향토음식연구원을 설립했다. 김지순 원장은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지난 2009년 재암문화재단에서 재암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0 년에는 제주향토문화명인 제1호에 선 정됐다.

그럼에도 모자의 향토음식에 교육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의 요리학원 에서는 한 달에 한번 ‘고미제’라는 제 주향토음식강좌를 열며, 토요일과 일 요일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찾아와 강 의를 받기도 한다.

김지순·양용진 모자는 앞으로 제주 향토음식이 단순한 먹거리의 의미를 넘어 문화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향토 음식은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까지 들 여다 볼 수 있는 우리의 고유한 민속문 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용진 부원장은 “인위성을 배제하 고 자연순화를 지향하는 제주향토음식 속에, 바로 육신을 버리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힐링문화가 담겨 있다”며 “어 머니께서 그동안 제주음식을 재현하고 기록하는데 힘을 기울이셨다면, 저는 앞으로 제주음식을 재조명하고 그 가 치가 올바르게 인식되도록 노력을 해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옛 제주대병원 활용 방안은?

창업보육센터·대형음식점으로 구도심 활성화 도모

창업보육센터에 35억 투입… 64개 업체 입주 계획 일부는 민간기업 임대 후 대형음식점으로 조성 연말까지 사업가시화 안 될 경우 원점서 재검토

옛 제주대병원 활용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어 3년째 끌어온 이 문제가 마무리될지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라동 신축 부지로 이전된 지 3년이 되 도록 방치되고 있는 옛 제주대병원 내 신 관과 구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창업보육센 터로 만들고, 일부는 민간 기업이 임대한 후 대형음식점으로 조성할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창업보육센터와 대형음식점 등 복합 형태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제주대병원이 교육시설이라서 교육·연구 시설로 활용돼야 건물 일부에 대해 민간 임대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옛 제주대병원은 구 제주의료원 을 인수해 지난 2001년 11월 1일 정식 개

원한 후 2009년 3월 아라동 신축부지로 이 전하면서 비운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 했다. 우선 제주대는 옛 제주대병원 신관과 구관 일부를 리모델링해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30일 중소 기업청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원 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창업보 육센터 건립 예산은 이번에도 확보된 국비 15억과 제주대와 제주도 각각 10억 등 총 35억원을 투입해 옛 제주대병원 신관과 구관 일부를 확장하고 창업보육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대는 다음달 실시설계에 착수해 올 해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창업보육센터가 건립되면 도내 64개 중소 기업과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앞서 제주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일 서울 소재 (주)한울글로텍과 옛 제주대병원을 활용하는 ‘구 제주대학교 병원 리뉴얼 (RENEWAL) 사업 공동 양 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앞으로 옛 제주대 병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공동 사업에 협력하고, (주)한울글로텍은 병원 구관을 리모델링해 대형음식점으로 조성하는 방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옛 제주대병원 일부를 임대 주는 방식으 로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과 신속한 리모델링 인·허가 절차 지원 등에 협력기로 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내달 중에 실질적인 실무협력 창 구로서 (가칭)구 제주대학교병원 리뉴얼 추진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주요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양해각서를 체결한 (주)한울글로 텍은 지난 1986년에 설립된 한울방직 (주)에서 2008년 5월 섬유사업본부를 분 리해 창립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각각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래 매출의 70% 가량을 해외매출 에 의존하고 있는 부직포 수출기업이다. (주)한울글로텍은 특히 옛 제주대병원의 활 용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옛 아카데미극 장 건물을 인수해 어린이 놀이시설로 리 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옛 제주대병원에 창업보육센터 와 대형음식점이 들어서면 상주인원 및 유동인구가 늘어 옛 도심지역 상권 활성 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해각서(MOU)가 양측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적 구속력이



제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옛 제주대병원이 창업보육센터와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형음식점으로 개 발될 것으로 보인다.

없는데다,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를 보이 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해 무산될 여지도 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옛 제주대병원 활용을 위해 서울의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어서 앞 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양해각서 내용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면 병원 활용 방안은 다시 원점에서 재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응복 언론미디어팀장

무문유설



이인호
교육학과 교수

제주대에 임용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동안 4차례 투표할 기회가 있었다. 총장직선제 폐지 찬반투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불신임 투표, 교수회장 보궐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였다. 투표와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로 상이한 주장을 접하며 집단의 사정과 얽히고 엮여졌지만 마지막 의사결정은 개인의 몫이었다. J. W. Newstrom의 주장처럼, 참여란 개인이 집단상황에 정신적, 정서적으로 관여해 집단의 목표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고, 목표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도록 하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장만재 전남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일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교육감직선제 폐지 논쟁의 제3라운드가 점화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40여년에 걸친 임명제를 극복하고 1991년 간선

제로 실시돼 2006년에 처음으로 주민직선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란은 2010년 6·2동시지방선거 직후부터 다시 시작됐다.

제1라운드는 동년 10월 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교육감직선제 폐지와 시·도의회와의 동의하에 교육감을 임명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회의의 직선제 폐지 반대 입장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로 이 논쟁은 수면 아래로 잠아 앉았다. 제2라운드는 작년 8월, 박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단일화와 연계된 2억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접화돼, 세종시 교육감선거와 맞물려 활발 타올랐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러닝메이트제와 공동등록제가 제시됐지만, 17번째 지역교육의 수장인 세종시교육감은 현행 법령에 의하여 직선제로 선출됨으로써 제2라운드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불씨는 상존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평균 법정 선거비용으로 38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이에 따른 금권개입과 비리 연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이념적 차이와 갈등이 부각되었고, 직선제 관련 쟁점에 대한 교육계와 행정학계의 인식차이도 논란의 원인이다. 따라서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지 발화될 수 있으며, 그 불길은 2014년 전국의 민선6기 교육감을 선출하기 직전까지 지속적이나 간헐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 우여곡절 끝에 처음 시행된 교육감직선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외 선진국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관련 법률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교육감직선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제 가운데서 핵심적인 보루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자치단체장과 동등한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지역교육의 발전과 학교교육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감의 중대대표성은 중요하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위해서이다. 지방교육자치 부활 이전의 40여년 세월 동안, 교육은 정치의 시너

역할을 담당해왔다. 아직도 정치권력이 무소불위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할 때,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이라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우리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지역교육을 위한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현재 시·도의회로 통합된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통해서는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교육감선출제도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교육감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은 주민 전체에 의한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신중한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교육감직선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세계와 및 지방과 시대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교육주권을 지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6월이면 19대 국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및 과학의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독자기고



이지한
정치외교학과 2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지 4년만에 다시 미국산 소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에서는 미국산 소에 대한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도 다시 부활했다. 광우병과 관련해 여론이 흔들리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관계자, 시민단체, 교수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단을 미국으로 파견해 광우병이 발생한 캘리포니아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2010년 7개월령의 젃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만큼 그 경위와 비정형 BSE(해면상뇌증)으로 판단된 근거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료처리시설과 도축장, 미 농무부 등도 함께 방문해 광우병 관리프로그램과 기타 예방활동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보낸 서신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광우병 사태, 안일한 태도로는 국민 마음 못 잡는다

‘캘리포니아 톨레야군티 소재 젃소 농장에서 사육된 이 젃소는 갑자기 다리를 절고 일어설지 못하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 처리했으며 젃소의 뇌에서 뽑은 시료에서 총 3번의 검사를 거쳤다. 우선 소의 사체가 옮겨진 사체처리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해 1차 검사를 했고 캘리포니아에서 확인 검사를 했다. 최종 확진은 미 정부의 표준실험실인 국가수의연구소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동물이 비정형 BSE라고 확진했다.’라며 해당농가에 있는 1200여마리 소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추후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전염병학교실 교수는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생활했던 다른 소들이 같은 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어오는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소가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번 광우병은 동물성사료가 원인이 아닌 돌연변이(BSE)라서 감염가능성이 적고, 우

을 것 같다. 잠시 수입중단을 통해 정확한 조사를 한 후 수입을 재개해도 늦지 않을 듯싶다. 미국산 소를 먹은 후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례가 없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17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과 불안감이 높은 만큼 소에 대한 검증이 됐고, 그만큼 위험성도 낮아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건 국민을 돌아보는 자세다. 국민건강권이 우선시 되지 않고 불침묵 이익을 쟁기는 모습에 우리는 정부에 대해 인간미를 볼 수 없게 된다. 우리 정부는 처음 출항할 때부터 경제발전을 주된 과제로 삼으며 외교관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세계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 끈을 놓지 않고 나라 선풍하는 모습을 보이며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조율하는 모습도 이전 필요하다. 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한승호
법학부 4

등교하는 발걸음을 설레게 만든 봄빛도 어느덧 저버리고, 4월이 주는 풋풋함을 학업에 쏟게 한 중간고사도 끝났다. 4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아마 이 기고가 게재되는 신문은 5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5월인데 왜 지나간 4월 이야기를 이제야 하는 거지?”라는, 신선하지 못한 글에 대한 독자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더욱 더 따뜻했던 4월, 우리들의 활동을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달 2일부터 이틀간 우리 here N ow

4·3추모팔찌 프로젝트로 따뜻한 봄 느껴

팀(팀원 한승호 외 15인)은 4·3 희생자 및 유가족 분들을 진정성 있게 위로하는 행사를 했다. 지역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성숙한 대학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던 ‘keep 4·3 in mind’, 4·3추모팔찌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준비한 1600개의 팔찌가 모두 배포되었다.

행사 당일에는 4·3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을 돕기 위한 모금행사를 따로 진행했는데 총 71만 241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모금했다. 이 모금액은 4·3공식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생계가 어려우신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특정 기부대상

을 지정 및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4·3평화재단이 추진하는 기부금 모금사업에 첫 번째 기부단체로서 기부를 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지만 4·3희생자 및 유가족 분들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부 회사 및 단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들이 주체가 돼 자발적 참여와 기획, 행사 진행을 통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한다. 각기 다른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아픔에 하나된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학생들의 높은 의식수준에 감탄하였다. 하늘에서 보고 계실 희생자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대견한 마

음으로 지켜보실까?

4월 3일이 지난 지금도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가끔씩 팔찌를 착용하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팔찌를 차고 다녔으면 한다. 젊은이들이 4·3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상징성은 도민을 넘어 국민들에게 감동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날려진 유가족 분들에게도 큰 위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성숙한 추모의식이 대학 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지도해주신 김동운 교수님과 재정적 후원 등 많은 지원을 해주신 제주4·3평화재단, 총학생회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외국어교육원 수강으로 회화실력 수직상승

Conversation, English Camp를 차례대로 수강해 왔다. 토익수업도 병행하며 들으면서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토익점수는 600점대, 그리고 영어회화 수준도 외국인과 마주했을 때 덜덜 떨 만큼의 초급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원어민 강사와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려웠고 수업 전날에 항상 다음 수업에 말할 내용들을 머릿속에 암기해 갔다.

그런데 토익수업 기초반인 Intensive English Level 1을 수강하고 있을 때 토익만 공부 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영어회화 시간 때 배웠던 표현들이 토익문제에 흔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영어회화 수업에서의 자신감이 생기면서 토익수업이 점점 재밌어졌다. 이러면서 영어회화 실력은 Level 1에서 Level 2를 들을 만큼 상승하였고, 토익 점수 또한 600점에서 700, 800으

로 수직상승하게 됐다. 하지만 그 당시 점수로 나의 상승된 실력을 증명한 토익과는 달리 영어회화 수업은 내 실력이 향상됐다고 느끼게 만드는 결과물은 없었다. 매일 만나는 원어민과 인사하고 말을 해도 ‘과연 내 회화실력이 늘었을까?’, ‘다른 외국인과 대화를 해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까?’ 하는 의구심만 늘었다.

그러나 의구심은 두 번의 면접을 보면서 뿌리칠 수 있었다. 작년 7월 말 학생복지과에서 추진한 테마기획여행 면접에서 면접관의 기속적인 영어 질문에 명쾌히 대답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테마기획여행에 선발이 되어 유럽여행을 다녀오는 행운까지 얻었다. 덧붙여, 유럽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외국어교육원에서 배웠던 회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었다. 또한 올 해 3월 초에 있었던 해외인턴십 영어면접에서는 웃으면서 면접을 볼 만큼의 편안함을 찾았으며 그

결과 당당히 해외인턴십에 선발돼 캐나다 밴쿠버로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외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상상으로 설렌다.

영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나는 자신감이라고 말할 것이다. 원어민 강사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지내왔던 시간들은 조금씩 자신감으로 다가왔고 이 자신감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공부는 영어회화에서 시작한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영어회화에서의 자신감이 여러분의 영어성적을 올려줄 것이다.

끝으로, 약 8개월 간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 외국어교육원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캐나다 밴쿠버로 떠나게 돼 당분간은 외국어교육원을 멀리 떠나지만 추후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되어 다시 찾아갈 것을 약속한다.

동문칼럼

꿈을 꾸는 삶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엄지손가락 하나로 능숙하게 문자를 보내는 젊은이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낀다. 또 가끔 시청주변에서 개성 있게 옷을 입은 젊은 친구의 자신감에 경이를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시청의 거리를 매우 좋아하며 가슴이 답답할 때는 어울림 광장 벤치에 앉아 오가는 젊은이의 냄새를 흠지기도 한다. 나의 대학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겨보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그렇다.

지식의 욕구에 목말라하며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아는 척 해보려 어려운 책을 볼 때도 씹을하기도 하였다. 대학 1, 2학년 때 읽었던 400여권의 책들,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토론과, 지기 싫다는 경쟁심에 독서를 하였던 기억은 나로 하여금 실소를 머금게 한다. 한국 근현대사, 러시아 혁명사, 중국 혁명사, 제3세계 문학, 마르크스의 자본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까지 다양하게 섭렵했던 책 읽기는 지금도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탑동 바닷가에서 술을 먹으며 토론을 하다가 버스를 놓치고 택시비는 술값으로 다 날리고 걸어서 제주대학 교까지 가면서 2차 토론을 하였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나의 아들은 제주대 사학과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고 올 10월이면 제대하여 복학할 예정이다. 아들 친구들은 스펙을 쌓기 위하여 학원을 다니고, 자원봉사 시간을 쌓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기특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불행한 대학생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기도 한다.

대학생활의 목표가 취업에 맞추어져 있어서 모든 공부가 스펙과 학점에 맞추어져 있으며 교양이나 독서 역시 기업 면접에 맞추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무언지 모를 답답함에 가슴이 아파온다. 모두가 취업을 위하여 스펙을 쌓다 보니 비슷한 조건이 되고 거기에 다시 경쟁이 붙어 더욱 치열하게 스펙 쌓기



고성환
농업경제 85학번
제주포럼 C 사무처장

에 몰두 할 수밖에 없다. 살인적인 실업률이 젊은이들에게 힘든 삶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대기업에 취업한다 하여도 40세 정년퇴직이니 모두가 안정적 직장인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일자리에 몰릴 수밖에 없다.

나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대기업 취업, 높은 연봉, 좋은 차, 좋은 집)에 관심을 쫓는 젊은이들에게 험한 길, 새로운 길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새로운 일거리도 많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 역시 많다.

친한경 콩나물을 재배해 먹고사는 후배는 꿈을 먹고사는 젊은이였고 제주올레로 유명한 서명숙씨는 산티아고를 걷고 난 후 제주의 올레길을 만들어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경남도지사 김두관씨는 마울리장을 하면서 꿈을 키웠고, 대학시절 4·3문제에 빠져 열심히 뛰다가 영상으로 기록을 보존하려 영상에 뛰어든 후배는 지금 영상학과 교수를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열대과일 망고를 처음 재배한 농부의 피와 땀이 있었고 말산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며 노력하는 기업인도 있다.

21세기는 창의성이 강조되는 세기라 한다. 기업 역시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사 시험에 매달려 있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기도 하다. 창의성은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여야 얻어지는 산물이다.

스펙을 쌓는 데 쏟는 시간을 새로운 꿈을 꾸는 데 쓰면 어떻게 생각해본다. 한번 꾸는 꿈은 몽상이지만 지속적으로 꾸는 꿈은 이상이며 이를 준비해 나가면 현실이 될 수 있다.

독자의 눈

독자와 소통하는 열린 지면 기대

지금 제주대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총장직선제 폐지, 기성회비 문제, 법인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총학일간지 광고 문제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주대신문에서 이런 사건들을 다루어지는 기사들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 기사가 파편적이라 전체 프레임을 읽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 흔히 언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기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관적 판단이나 주장이 기사의 공정성을 흐리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기계적인 사실기사로 그 사건에 대해 똑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진실기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계적 사실기사는 사건 프레임을 모르거나 사전지식이 부족한 경우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사건도 결국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생성되는데 그 사람들의 갈등 관계는 대개 이해 당사자 간의 비대칭적인 역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결국 상대적 강자는 약자보다 유리한 가운데 사건이 진행되지만 사실 기사에서는 강자의 유리함이 잘 들어



김위례
사회학과 3

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약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라는 입장을 취하는 언론이 중립적인 언론이다. 즉 사건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주관적 판단을 하는 기자의 기사가 우리에게는 훨씬 영향력 있고 사건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제주대의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언론은 제주대신문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대신문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정보와 사람들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 서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대중들이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언론이나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의 관점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게 하듯, 우리는 제주대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있는 학교를 바라고 있다. 즉, 제주대신문의 관점이 제주대학교를 바라보는 제주대학생들의 관점이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제주대신문이 학생들이 읽고 공감하고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의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학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2만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press@jejunu.ac.kr



휠체어 일일 체험기 장애인인권대책위 & 프로젝트 팀 '다인' 주관

“높은 턱 하나가 천길 장애물”

올해 제주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그만큼 제주대는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48명의 장애 학생에 대한 여건이 잘 갖춰진 편이다. 그런데 막상 장애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면 어떨까? 휠체어를 타고 온종일 캠퍼스를 돌아다녀야 하는 장애 학생들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큰 문제까지, 그들을 가로막는 온갖 벽에 부딪치기 일쑤다. 기자는 그들의 생활을 체험해 보기 위해 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 프로젝트 팀 '다인'이 주관한 '휠체어 일일 체험-WITH MAKE'에 참가했다. 행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매일 한 명의 참가자가 전동 휠체어를 탄 채 일상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 하루 동안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 오는 29일부터 3일간 열릴 아라대동제 때 상영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이동 중에 급사자, 좁은 문... 끊임없는 장애물

휠체어 일일 체험을 하기로 한 지난 2일에는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다. 오전 8시 40분, 대학원 동 1층 로비에서 하루 동안 함께할 스태프들을 만나 전동 휠체어에 탑승했다. 전날 잠시 연습해 보기는 했으나, 그새 다시 생경해진 휠체어는 조종이 쉽지 않았다. 전동 휠체어는 스틱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로,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이 가능해 일반 수동 휠체어보다 가격이 훨씬 높다. 스태프를 통해 들어보니, 썬 것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전동 휠체어라 할지라도 일반인들의 보행과 결코 같을 수는 없다. 오전 9시에 인문대학에서 있을 수업 때문에 황급히 대학원 동에서 나와 이동을 시작하는데,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온 길이 그렇게나 멀고 험난한지 처음으로 실감했다. 우선 올라가는 길 경사가 굉장히 급했다. 더욱이 방향 전환이 힘든 탓에 한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잦았다. 설 세 없애 내리는 비로 인해 주행은 더 까다

로웠다. 휠체어를 타게 되면 한 손은 스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 해서 우산을 쓸 수가 없다. 궁여지책으로 입고 온 잠바의 모자를 폭 눌러쓴 채 이동하다 보니,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미처 살피지 못해, 옆에 있던 스태프의 도움이 없었으면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인도는 도로에 비해 턱이 높아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무리가 따랐다. 장애 학생을 위해 도로와 인도 사이 경사를 마련해 놔지만, 이마저도 경사가 급해서 내려갈 때 몸에 힘껏 힘을 주지 않으면 충격이 고스란히 휠체어로 전해졌다. 인문대학으로 올라가는 소위 '폭풍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오를 때도 불편한지 마친가지였다. 경사가 심하게 급하다 보니 몸의 균형이 뒤로 쏠려서, 중간에 내려가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되기까지 했다. 힘겹게 다 올랐을 때는, 두 개의 블라드가 주행을 가로막았다. 그 사이로 빠져 나가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스태프가 하나를 앞으로 옮겨준 후에야 겨우 이동할 수 있었다.



인도와 도로간 높이 차가 심해 도로로 다니는 게 차라리 편했다.



인문대학으로 올라가는 '폭풍의 언덕'은 경사가 심하게 가파라 오르내릴 때 아찔한 기분을 느꼈다.

강의실로 향하는 여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입구에 경사로가 없는 건물로 출입시, 장애 학생은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수업 시간은 다가오는데,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원래 경로보다 훨씬 더 길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맞춰 강의실에 도착한 뒤에도 난관은 도사리고 있었다. 강의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휠체어



강의실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향 전환이 힘들어 스태프의 도움을 통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가 들어가기에 좁은데다, 직각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도 힘들어 도저히 강의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제야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으면 어김없이 뒷바퀴가 걸리고 말았다. 그 과정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 아무리 시도해도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자, 결국 스태프가 직접 나서서 도와준 끝에 힘겹게 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고정된 책상과 의자는 무용지물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는 바닥에 고정된 채 서로 붙어 있었다.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맨 뒷자리에서 책상 없이 수업을 받아야 했다. 달리 교재를 돌 때가 없으니 교재는 무릎에 둘 수밖에 없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시간을 내리 그 자세로 수업을 들었다. 고개는 고개대로 아프고 자꾸 원치 않게 잠이 쏟아졌다.

쉬는 시간, 잠시 불임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을 때 역시 당혹감은 이어졌다. 화장실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이다. 가볍게 열리는 문이 아니어서 손으로 힘껏 밀려다 보니 자연히 몸이 떠 휠체어와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발을 이용해 문을 밀 수밖에 없었다. 강경대며 겨우 문을 열고 난 뒤에도, 들어가는 간격이 좁아 또 한 번 지겨운 몸싸움을 반복해야 했다.

매점 앞에서 혼자 우물쭈물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과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 매점으로 향했다. 물론 이때도 친구들이 건물 앞쪽으로 나갈 동안 혼자 건물 뒤로 돌아와서 나와야 했다. 사소한 소외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점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혼자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번에도 역시 문이 좁아서였다. 친구들이 먹을 것을 고르는 동안 혼자 우물쭈물대며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사람들의 함성함소리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는 푹 숙여졌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은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었다. 곳곳을 지나가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 다녔다. 대부분은 호기심에 찬 시선이었으나, 어떤 사람은 조롱 섞인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분명 잘못된 게 없음에도, 절로 주눅 들고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친구들의 배려로 매점이 아닌 다른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4층에 있는 휴게실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방향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는 후진을 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는 있으나 마나 싶었던 엘리베이터 안 거울의 존재가 그날따라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거울을 통해 뒤를 확인하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빠져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수업을 모두 듣고, 신문사가 있는 대학원동 건물로 내려가는 길은 그나마 휠체어를 타



학생회관에서 화장실에 들리는 길, 굳게 닫힌 화장실 문으로 인해 들어가는 것조차 여의지 않았다.



매점 앞, 들어갈 공간이 좁아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친구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고 다니는 데 익숙해져 전보다는 수월했다. 그러나 경사가 급한 곳을 내려갈 때 가속도가 붙어 자칫 위험할 뻔하기도 했고, 학생회관에서 나오며 바닥에 울퉁불퉁한 것이 깔린 곳을 지날 때는 휠체어가 크게 덜덜덜덜거리는 등, 곳곳에 불편 요소들이 즐비했다. 체험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점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피부로 와닿는 것이었다. 대학원동 건물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3층 신문사까지는 휠체어로 가지 못하고, 1층에서 힘겨웠던 체험을 끝맺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어렵지 않아

기자가 느꼈던 그날 하루의 심정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는 이상 느낄 수 없던 것이 많았다. 사소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생활을 장애 학생들은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군소치고 목욕, 그리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행사의 모토 'WITH MAKE-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은 달리 이루어지는 게 아닐 것이다. 이들이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에 대한 따뜻한 관심, 그리고 그에 대한 작은 배려만 있다면, 학내 장애 학생들은 얼마든지 마음 놓고 학교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소영 기자

Challenge Passion Creativity

JDC University Academy

대학생 아카데미

기간 ▶ 2012년 3월 6일 ~ 6월 5일

장 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홈페이지 | www.jejusori.net
페이스북 | facebook.com/JDCAcademy
블 로그 | blog.naver.com/JDCAcademy

3월 6일



변정일
JDC 이사장
제주와 온 JDC의 도전
"영동국제자유도시건설"

3월 13일



정종철
개그맨(유동준)
하고자 하는 것에 미쳐라
세상을 향한 무한도전

3월 20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

3월 27일



정지영
"부리전(박)" 영화감독
(고려대학교 전문교수)
기획장

4월 3일



김태선
법제대(박) 변호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
청상은 내가슴에

4월 10일



전옥효
위령, 정경연구소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당신의 삶에 이기는
승만을 위하여

4월 24일



유영대
남서울대학교 교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전승환 리더십

5월 1일



고진혁
불가불가(박) 대표
(정기하와 일꾼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5월 8일



김규형
3P 차기경영연구소 대표
성공을 위한 100가지

5월 15일



김석봉
석봉도스트 대표
도전, 함께하는 내일

5월 22일



신상훈
방송작가
창의적 사고를 위하여

5월 29일



이예진
아나운서
신뢰와 호감을 주는
소파사 커뮤니케이션

6월 5일



김용택
시인
자연과 나의 삶,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강의 일정표

주최 · 주관







문화 단신

제대미전 11일부터 5일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제40회 미술학부 작품전 '제대미전'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제대미전은 미술학부 학생들의 정기적인 행사로 개강해시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며 각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한국화, 서양화, 조소 등 총 115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고지는 미술학부회장은 "예술디자인대학 학생들의 다재다능한 도전과 열정의 끼를 담은 노력의 결과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심포니 연극회 15일
문예회관 대극장서

제26회 제주대학교 윈드심포니 정기연주회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 관악부장 박종현 외 56명의 학생, 대학원, 동문, 객원이 연주한다. 연주곡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며!-국립제주대학교에 영원하라, 베이스 트롬본을 위한 협주곡, 콘서트 밴드를 위한 포스트 카드, 선원과 고래, 피아노 협주곡 내림 가단조 Op.16, 석양의 고향에서, 작품 8번이다. 한편 제주대 윈드심포니는 1981년 사범대학 음악교육과가 개설되면서 관악전공 학생들로 이뤄진 관악단으로, 1987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